

조선 후기 증수무원록언해 시장기록에 기술된 해부학용어의 검토

윤영현¹, 신동훈¹, 홍성욱², 홍승직³, 이승덕⁴, 기호철⁵, 김창영⁵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²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³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⁵문화유산연구소 길

Anatomical Landmarks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Described in Jeungsu Muwonrok Eonhae of Joseon Dynasty Period

Young Hyun Yun¹, Dong Hoon Shin¹, Seonguk Hong², Seung Jic Hong³,
Soong Deok Lee⁴, Ho Chul Ki⁵, Chang Young Kim⁵

¹Department of Anatomy and Cell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Soon Chun Hya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³Department of Sinology, Soon Chun Hya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⁵Ghi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 Jeungsu Muwonrok great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s in pre-modern East Asian countries. Joseon period documents based on Muwonrok are called Geoman, which includes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and interrogation report that questioned those involved in the incident. B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from a medical perspective, we could obtain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ath of the deceased and the circumstances occurring at the time of the incident. However, the lack of anatomical review of the terminologies referring to each part of the human body has been a major obstacle to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document. In this study, it is therefore intended to help researchers conducting research on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of Joseon Dynasty by accurately estimating the exact anatomical location of human body parts described in them.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not difficult to convert the names of each body part in the post-mortem document into modern anatomical term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natomical positions at the head part were ambiguous, so a more thorough review was required for them.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report is expected to enable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riminal scenes described in Joseon period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Keywords : Geoman, Muwonrok, Forensic medicine, Anatomy,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 Joseon Dynasty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융복합지원사업(800-20220548)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연구자문장려비(2023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June 1, 2023; **Revised:** June 15, 2023;

Accepted: June 19, 2023

Correspondence to: 신동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cuteminjae@gmail.com

© 2023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2671-566X (Online)

서론

중세 유럽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망원인의 판정, 독극물의 확인 등 애매한 죽음을 판정하고자 하였지만 적어도 근대의학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유럽의 법의학(法醫學) 조사 수준은 매우 낮았다 할 수 있다. 유럽의 법정에서는 대략 13~16세기부터 의사의 증언이 사망사건의 판결에 참고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법의학적 조사가 가능해진 것은 19세기부터로 그 이전에는 마녀사냥과 같은 미신적 요소가 판결을 좌우하였다[1,2].

한편 근대 이전 동아시아 법의학의 수준은 오히려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는 송대(宋代)가 되면 검험(檢驗)이라고 불리는 변사자 조사작업 기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현대적 법의학 검시(檢屍) 기법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경험론에 근거하여 검시를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등 동아시아 자생적 법의학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2-7].

중국 송대 검험 전통은 그 후 한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져 각국의 법의학적 검시 기법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원대(元代)에 편찬된 검안(檢案) 서적인 무원록(無冤錄)이 여말선초(麗末鮮初) 때부터 도입되어 범죄 심리(審理)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조선 세종 때(1438년)에는 이를 보완한 신주무원록(新注無冤錄)이 간행되어 검시 기법의 토착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영조(英祖) 24년(1748년)에는 조선 사회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정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간행하게 되었다. 증수무원록은 중국의 원본인 무원록의 결점을 크게 개선하여 조선시대 전통 검안 유서(類書)가 발전하여 도달한 최후의 결정판에 해당한다는 평이 일반적이다[2-4,8].

전통 법의학적 조사 기법에 기반하여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검시문안(檢屍文案)을 검안이라 부른다. 검안에는 당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시신(屍身)에 대해 검시한 후 작성한 법의학적 소견서인 시장(屍帳)과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조서를 합하여 조정에 보고한 보고서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규장각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韓國本綜合目錄)에 의하면 규장각(奎章閣) 서고에는 현재 600여 종 이상의 검안류(檢案類)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2,5,6,9-11]. 이 검안 서류는 조선시대 검시에 관한 실무 지침인 증수무원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근대 법医学을 서구로부터 수용하기 이전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던 동아시아 사회의 법의학적 사고방식 체계와 검시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처럼 규장각에 남아 있는 시장은 남아 있는 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도 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내역이 기술되어 조선시대 당시 법의학적 검안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쓰인 흉기에 대한 검토 등[12] 소수의 논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법의학적으로 이 자료를 깊이 탐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분석하는 인문학자뿐 아니라 시신을 검사한 기록을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류학자-해부학자 간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도가 지금까지 매우 미흡하였기 때문이다[2].

규장각의 시장에 대한 학제 간 연구는 검안 자료에 대해 인문학 연구진이 먼저 서지사항에 대한 해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번역하면 공동연구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의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시장에 기술되어 있는 검안 내역을 의학적 시각에서 검토하면 사인까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검안 자료에서 인체 부위를 가리키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해부학적으로 면밀히 검토된 바가 없었다. 결국 조선시대 시장에 대한 의학적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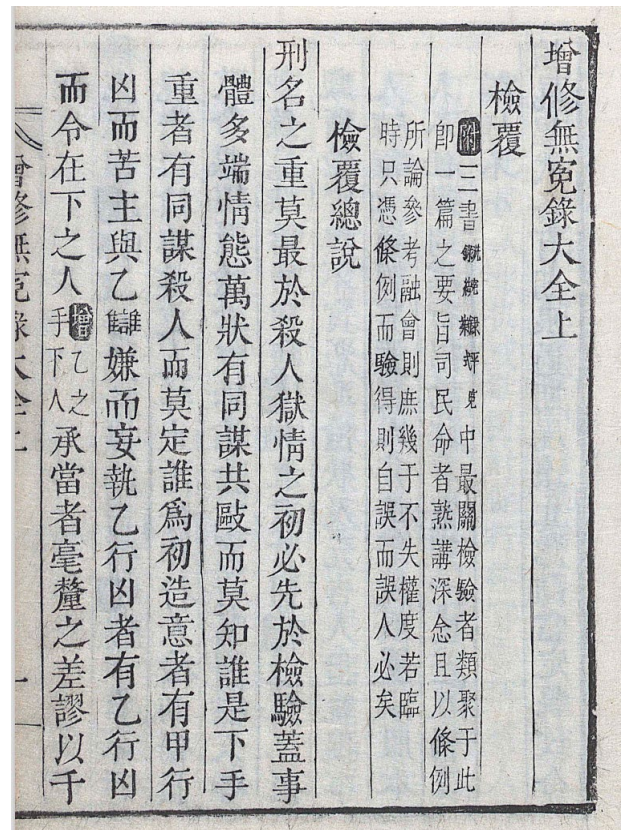


Fig. 1. Jeungsu Muwonrok (增修無冤錄) published in Joseon Dynasty period.

석에 있어 각 신체 부위의 명칭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는 향후 이 분야 연구를 의학적으로 보다 더 타당한 기반 위에 올리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시장 작성 시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증수무원록에 수록된 인체 도면에 기술된 사람 신체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추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에서 1748년(영조 24년) 간행된 증수무원록과 이 책에 한글 훈토를 달아 간행된(1792년)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는 조선왕조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나라 각종 형사 사건의 조사 지침서로 활용되었다[2]. 증수무원록(Fig. 1)에는 원대 무원록 때부터 계속 전제되어 사용되어 오던 인체 도면이 두 장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사람의 앞면(仰面)과 뒷면(合面) 그림에 해당한다(Figs. 2, 3). 각 그림에는 검시자가 반드시 조사하여 관찰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인체 부위가 적시되어 있는데 해당 부위에 대한 관찰 내역을 별도의 목록에도 함께 기술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검시 현장

에 합석한 관리, 자문, 증인 등의 확인하에 날인하게 되어 있었다(Fig. 4) [4].

무원록(Figs. 2A, 3A)에 기록된 인체 부위는 원래 한자로 기술되어 있었지만, 증수무원록언해(Figs. 2B, 3B)에는 이용자가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한글 용어로 번역까지 수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검안과 관련된 해부학 관련 용어는 한문과 한글 용어 두 가지가 있었던 셈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와 인체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함께 참고하여 증수무원록과 증수무원록언해에 기록된 인체 부위가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지 현대 해부학적 측면에서 확정하고자 한다. 언해본의 한글 설명은 증수무원록언해[13]를 참고하고 해부학 한글 용어의 옛 용어와 새 용어, 현대 해부학 영문 용어는 의학 검색 엔진(Korean Medical Library Engine)의 의학용어사전(<http://www.kmlc.co.kr/>)을 참고했다. 또한, 해부학 한글 용어의 새 용어와 현대 해부학 영문 용어는 추가로 해부학용어집도 참고하였다[14].

결과 및 고찰

조선시대 증수무원록언해에 수록된 전면 및 후면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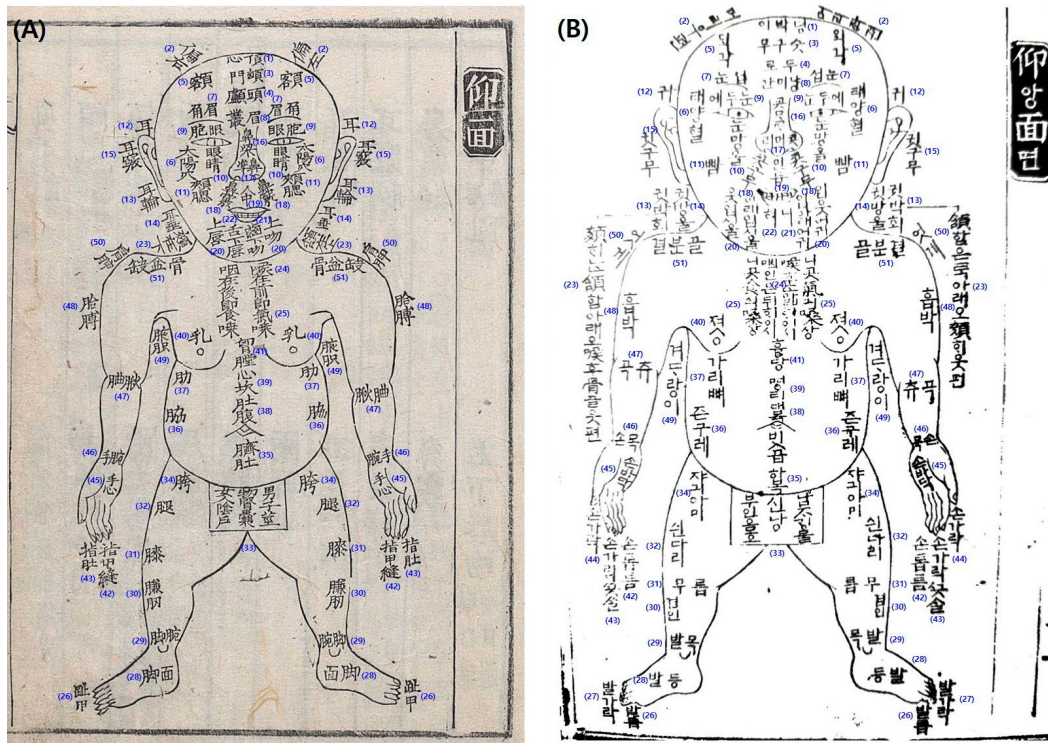


Fig. 2. Anterior aspect of human body. The drawing was included in (A) Jeungsu Muwonrok and (B) Jeungsu Muwonrok Eonhae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Numbers in each point correspond to those of anatomical locations in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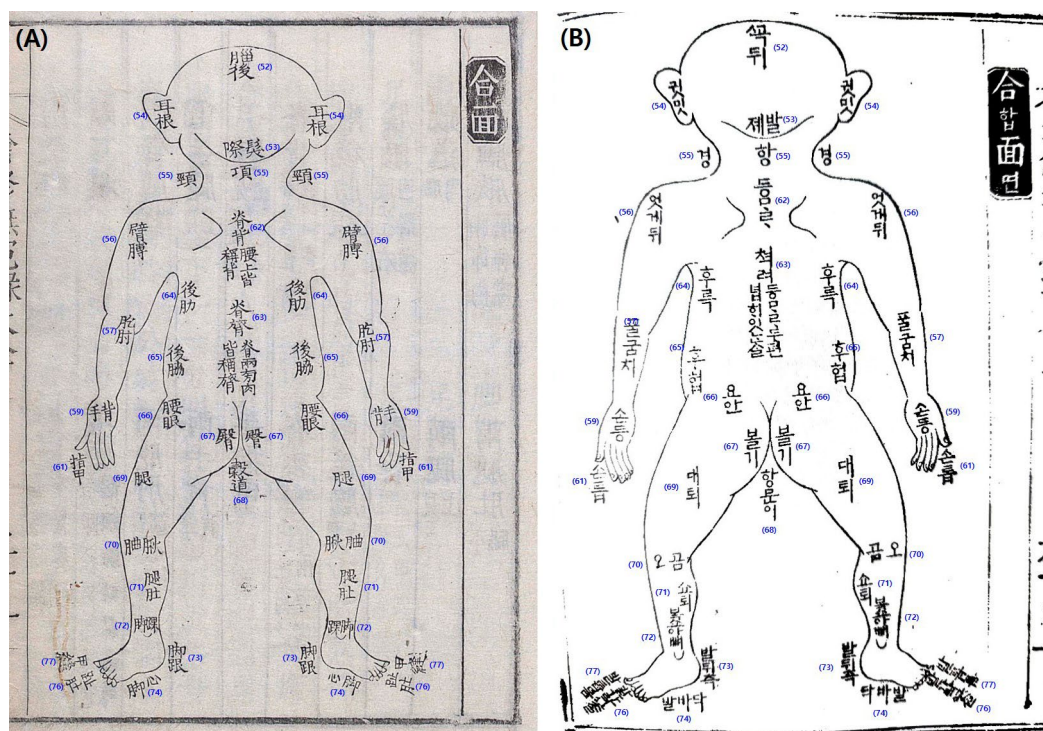


Fig. 3. Posterior aspect of human body. The drawing was included in (A) Jeungsu Muwonrok and (B) Jeungsu Muwonrok Eonhae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Numbers in each point correspond to those of anatomical locations in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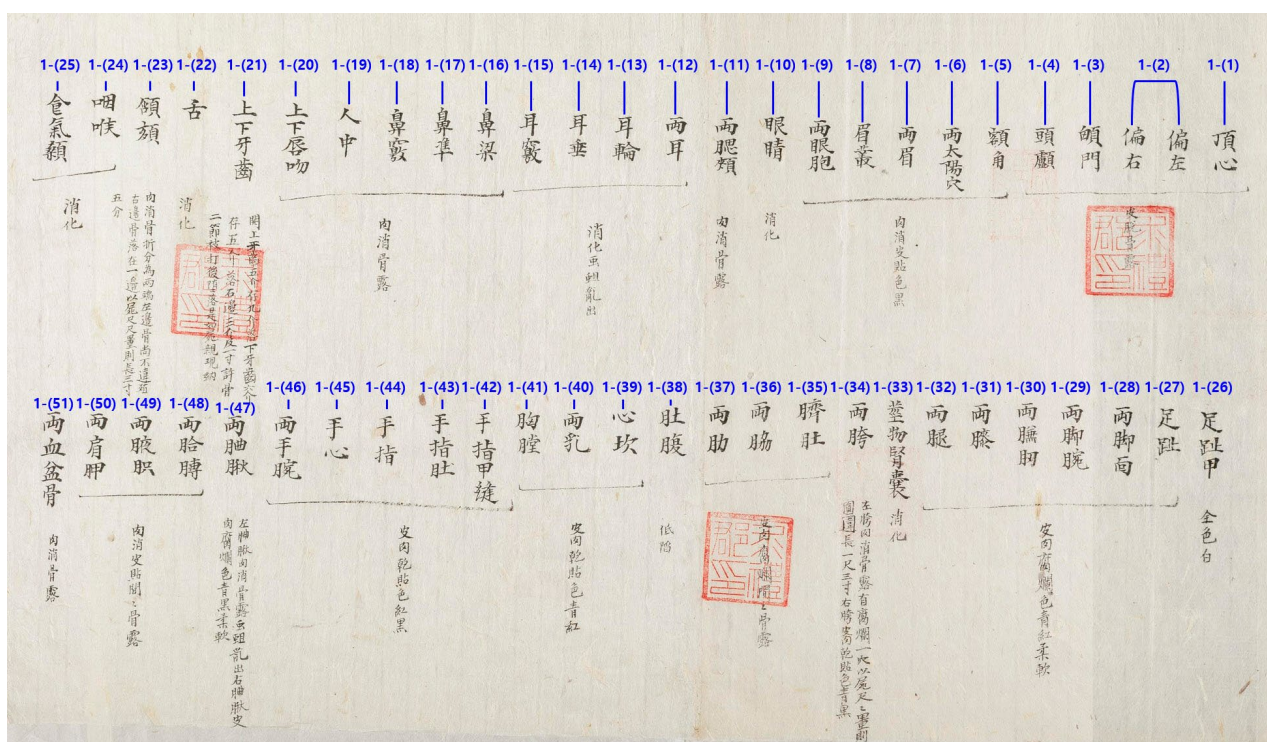


Fig. 4. The findings of postmortem investigation must be described in the document. The numbers correspond to those of anatomical locations in Table 1 and Fig. 2.

Table 1. Comparison of anterior structures of the body in Jeungsu Muwonrok Eonhae and modern anatomical terminologies

번호	무원록 원문	조선시대 언해본 한글 설명 ^{a)}	해부학 한글 용어		현대 해부학 영문 용어 ^{b),c)}
			옛 용어 ^{b)}	새 용어 ^{b),c)}	
(1)	頂心/정심	백회(百會). 속칭 정박이. 가마가 만들어진 곳	두정	머리마루점	Vertex
(2)	偏左偏右/편좌편우	머리 좌우편 옆	두정부	마루부위	Parietal region
(3)	顙門/신문	백회(百會) 앞, 속칭 수구멍	대천문, 전정	앞수구멍, 정수리점	Anterior fontanelle, Bregma
(4)	頭顙/두로	신희(顙門)의 아래	전두골	이마뼈	Medial part of frontal bone
(5)	額角/액각	상(額)이니 두로(頭顙) 아래 좌우의 내민 곳	전두골	이마뼈	Lateral part of frontal bone
(6)	太陽穴/태양혈	두 눈썹의 초리. 눈썹과 살쩍 들의 사이	정형골대익후상정	관자 혹은 관자놀이점, 관자뼈 전반	Pterion
(7)	眉/미	눈썹	미	눈썹	Eyebrow
(8)	眉叢/미총	총은 모여진 것이니 두 눈썹이 서로 모여진 곳. 속칭 양미간	양미간	눈썹활사이	Glabella
(9)	眼胞/안포	속칭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	Eyelid
(10)	眼睛/안정	눈동자. 속칭 눈망울	눈동자	눈동자	Pupil
(11)	腮頰/시협	얼굴 옆. 속칭 광대뼈 근처	관골부	광대부위	Zygomatic region
(12)	耳/이	귀	귀	귀	Ear
(13)	耳輪/이륜	귓바퀴	이개	귓바퀴	Auricle
(14)	耳垂/이수	귀 아래 드리워진 것. 속칭 귓볼	귓볼	귓볼	Lobule of auricle
(15)	耳竅/이구	귓구멍	외이공	귓구멍	External acoustic pore
(16)	鼻梁/비랑	콧마루	비배	콧등	Nasal bridge
(17)	鼻準/비준	콧머리	비첨	코끝	Nasal tip
(18)	鼻竅/비구	콧구멍	비공, 외비공	콧구멍	Naris, Nostril
(19)	人中/인중	입술 위, 코의 아래	인중	인중	Philtrum
(20)	脣吻/순문	순은 입술이고 문은 입가의 아귀	입술	입술	Lips
(21)	牙齒/아치	속칭 아(牙)는 어금니, 치(齒)는 앞니	치(이)	치아	Teeth
(22)	舌/설	혀	혀, 설	혀	Tongue
(23)	頷頰/함해	턱 아래. 함(頷)은 윗니. 해(頰)는 아랫니. 모두 후골(喉骨)의 윗편	턱밑	턱밑	Submandibular
(24)	咽喉/인후	해(頰)의 아래에 있는데 후(喉)는 앞에 있어서 기운이 통하고 인(咽)은 뒤에 있어서 음식을 삼킴	인후두	인후두	Pharyngolarynx
(25)	食氣類/식기상	상(頰)은 상(嚙)과 같으니 식기상은 곧 인후	인후두	인후두	Pharyngolarynx
(26)	足趾甲/족지갑	발톱	조, 발톱	발톱	Toenail
(27)	足趾/족지	발가락	족지	발가락	Toe
(28)	脚面/각면	발등	발등, 족배	발등	Dorsum of foot
(29)	脚腕/각완	과골(踝骨) 아래. 속칭 발목	족근	발목	Ankle
(30)	膝肋/겹인	무릎 아래이고 발목 위	하퇴	종아리	Leg
(31)	膝/슬	종아리 위 뼈마디. 두 무릎	무릎, 슬(부)	무릎	Knee
(32)	腿/퇴	무릎 위인데 속칭 허벅지	대퇴	넓적다리	Thigh
(33)	莖物腎囊/경물신낭	여자는 음호(陰戶)	음경, 음낭	음경, 음낭	Penis, Scrotum
(34)	胯/과	퇴(腿) 위이고 협(脇) 아래. 속칭 자개미	서혜부	살굴부위	Inguinal region
(35)	臍肚/제두	배꼽 부근인데 곧 하복(下腹)	제(배꼽)부	배꼽부위	Umbilical region
(36)	脇/협	늑(肋) 아래 뼈 없는 곳. 속칭 진구리	옆구리	옆구리	Flank

Table 1. Continued

번호	무원록 원문	조선시대 언해본 한글 설명 ^{a)}	해부학 한글 용어		현대 해부학 영문 용어 ^{b),c)}
			옛 용어 ^{b)}	새 용어 ^{b),c)}	
(37)	肋/륙	갈비뼈	늑골	갈비뼈	Rib
(38)	肚腹/두복	심감(心坎)의 아래인데 곧 대복(大腹)	명치부위	명치부위	Epigastrium
(39)	心坎/심감	흉당(胸膛) 아래이고 두복(肚腹) 위. 속칭 명치	상위부	명치부위	Epigastric region
(40)	乳/유	젖	유방	젖	Breast
(41)	胸膛/흉당	가슴 아래 당중(當中) 한 곳. 흉(胸)은 위이고 당(膺)은 아래	흉부	가슴	Chest
(42)	手指甲縫/수지갑봉	손톱 끝 살과 맞닿는 곳	하조피	아래손톱허물	Hyponychium
(43)	手指肚/수지두	손가락 끝 살이 두꺼운 곳	손가락끝	손가락끝	Fingertip
(44)	手指/수지	손가락	수지	손가락	Finger
(45)	手心/수심	손바닥 가운데	손바닥	손바닥	Palm
(46)	手腕/수완	손마디 굽혔다 폈다 하는 곳. 속칭 손목	수근	손목	Wrist
(47)	曲肱/곡추	팔 마디 안쪽 굽혔다 폈다 하는 곳인데 월주(肘肘)라고도 함	주(부)	팔꿈	Elbow
(48)	胎膊/흡박	견갑 아래인데 팔 윗마디	위팔	위팔	Upper arm
(49)	腋肌/액지	비협(臂脇) 사이. 속칭 겨드랑이	액와	겨드랑이	Axilla
(50)	肩胛/견갑	두 어깨	견갑골	어깨뼈	Scapula
(51)	血盆骨/혈분골	곧 결분골(缺盆骨)인데 어깨 안쪽 젖 위에 오목하게 꺼진 곳	쇄골	빗장뼈	Clavicle

^{a)}송철의(2004), ^{b)}KMLE 의학검진엔진(<http://www.kmle.co.kr/>), ^{c)}해부용 여섯째판(2014)

에 표시된 한문 및 한글 인체 부위 명칭과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에서 추정된 해부학용어(한글 및 영어)는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Table 1에 표시된 각 인체 부위는 Figs. 2~4의 해당 지점에 표시하여 두었다. Table 1과 Table 2의 한글 번역[13]은 역주중수무원록언해에 의하였다.

검토 결과 증수무원록의 전면 및 후면 도면 내 각 인체 부위 명칭은 무원록 원문과 한글 언해본의 기술 내용을 참고하면 현대 해부학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머리 부분에서는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기술이 다수 확인되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아래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머리 부분 용어에 대해 따로 자세히 논의와 판단의 근거를 기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정심(頂心): 무원록에는 정심이라 하였으며 언해본에는 백회(百會, 속칭 정박이) 혹은 가마가 만들어진 곳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서 백회란 현대 한의학에서도 머리 앞 정중선 위로서 사람마다 다른 앞이마 머리카락 경계선에서 위로 5촌(15~16센티 정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15]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를 가마가

만들어진 곳으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안 도면(Fig. 2)에 표시된 위치가 머리뼈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마루점(두정, vertex)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 (2) 편좌편우(偏左偏右): 언해본에 머리 좌우편 옆으로 되어 있고 Fig. 2의 위치도 참고하면 이는 마루뼈(두정골, parietal bon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머리뼈 관자(pterion) 부분은 언해에서 태양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고 있다고 보이므로 편좌편우는 머리뼈의 가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 마루뼈 부분만 국한하여 지칭한다고 생각하였다.
- (3) 신문(顛門): 언해본에는 속칭 숫구멍으로 되어 있어 Fig. 2의 위치를 참고하여 앞숫구멍으로 결정하였다. 신문이 백회의 앞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정심이 마루점(vertex)을 가리킨다는 것도 아울러 분명해졌다.
- (4) 두로(頭顛): 이마뼈(전두골)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안쪽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Fig. 2의 위치를 참고하면 더욱 정확하는데, 이마뼈의 가쪽 부분은 액각(額角)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호칭하고 있다. 두로는

Table 2. Comparison of posterior structures of the body in Jeungsu Muwonrok Eonhae and modern anatomical terminologies

번호	무원록 원문	조선시대 언해본 한글 설명 ^{a)}	해부학 한글 용어		현대 해부학 영문 용어 ^{b),c)}
			옛 용어 ^{b)}	새 용어 ^{b),c)}	
(52)	腦後/뇌후	백회(百會)의 뒤. 속칭 꼭뒤	후두	뒤통수	Occiput, Occipital
(53)	髮際/발제	목과 머리털이 잇닿은 곳	두발선	두발선	Hairline
(54)	耳根/이근	속칭 귀 뒤의 밑	갑개용기	조가비용기	Eminence of conchae
(55)	項頸/항경	항(項)은 곧 경(頸)의 뒤이니 머리 줄기임	목뒤	목뒤	Posterior cervical region
(56)	臂膊/비박	어깨 뒤	어깨뒤	어깨뒤	Posterior shoulder region
(57)	肱肘/흘주	팔마디. 속칭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Cubitus
(58)	手腕/수완		수근	손목	Wrist
(59)	手背/수배	두 손등	손등	손등	Dorsum of hand
(60)	手指/수지		수지	손가락	Fingers
(61)	手指甲/수지갑	손톱	조	손톱	Nail
(62)	脊背/척배	척골이 등에 있는 까닭으로 이른바 척배(脊背)임. 속칭 등마루	척추골	척추뼈	Vertebra
(63)	脊膂/척려	척(膂)은 살이니 등마루 두 편 옆에 있는 것	척추옆근육	척추옆근육	Paraspinal muscle
(64)	後肋/후륵		늑골뒤	늑골뒤	Rib, posterior part
(65)	後脇/후협		옆구리뒤	옆구리뒤	Lumbar region, posterior part
(66)	腰眼/요안	허리 좌우 오목하게 꺼진 곳	허리	허리	Waist
(67)	臀/둔	볼기	둔부	볼기	Buttocks
(68)	穀道/곡도	항문	항문	항문	Anus
(69)	腿/퇴		대퇴	넓적다리	Thigh
(70)	曲脛/곡추	무릎마디 안쪽 퍼졌다 굽혀졌다 하는 곳. 속칭 오금	슬와	다리오금	Popliteal fossa
(71)	腿肚/퇴두	속칭 종아리 바닥인데 곧 소퇴(小腿)임. 속칭 어복(魚腹)	하퇴	종아리	Leg
(72)	腳踝/각과	발 두 편 옆의 높은 뼈인데 곧 내외과(內外踝)임. 속칭 복승아뼈	복사뼈	복사뼈	Medial and lateral malleoli
(73)	腳跟/각근	발뒤축	발뒤꿈치	발뒤꿈치	Heel
(74)	腳心/각심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	Plantar
(75)	足趾/족지		족지	발가락	Toes
(76)	足趾肚/족지두	발가락 끝의 살이 두꺼운 곳	발끝	발끝	Tiptoe
(77)	足趾甲縫/족지갑봉	발톱 끝의 살과 합쳐진 곳	하조피	아래발톱허물	Hyponychium

^{a)}송철의(2004), ^{b)}KMLE 의학검진엔진(<http://www.kmle.co.kr/>), ^{c)}해부용 여섯째판(2014)

신문의 아래라 하므로 신문은 앞숫구멍임이 분명하다.

- (5) 액각(額角): 언해본의 설명에 의하면 두로 아래 좌우의 내민 곳이라 하였다. Fig. 2를 보면 액각이 눈썹의 가쪽에 존재하지만, 머리뼈 관자로 생각되는 태양혈보다는 안쪽에 있으므로 이마뼈 가쪽이 위턱(maxilla)과 관절하는 부위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 (6) 태양혈(太陽穴): 언해본에 의하면 두 눈썹의 초리로서 눈썹과 살쩍 둘의 사이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근거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의학계의 전통적 설명이 해부학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태양혈은 관자(pterion)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되어 있어[16] 그대로 따라 결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검안 시 기록에서는 반드시 태양혈 위치만 국한하여 기술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주변의 관자뼈 부분 전반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을까 한다.

- (7) 뇌후(腦後): 언해본에는 백회의 뒤로 속칭 꼭뒤라고 되어 있다. 백회를 마루점으로 본다면 해당하는 부위가 무척 넓다. 다만 목과 머리털이 잇닿은 곳은 시장에서 발제(髮際)라고 하여 따로 기술하므로 마루점에서 뒤쪽 머리카락의 아래쪽 경계까지를 모두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무원록에서 머리 부분의 위치를 지칭할 때 머리카락의 경계면이 요긴하게 쓰였는데 이는 검안 시 확인이 쉬워 편의의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

어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시장은 조선시대 지방 관내의 의원(醫員)의 입회하에 사망사건을 검사한 결과물로서 당시 검시 의학 체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조선시대 시장에는 검시자가 사망자의 신체에서 반드시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할 부위를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이를 신체 도면과 목록으로 적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2-6].

조선시대의 검시는 기본적으로 신주무원록과 이를 수정·보완한 증수무원록언해의 지침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현장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검시 과정은 초복검험관문식(初復檢驗關文式)이라는 공문서식에 기초하여 치러졌다. 관문식은 중국 원대 검시 제도가 이룩한 성과 중 하나로, 복잡했던 검시 보고 양식을 통합·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조선 초기의 검시 과정 역시 이 관문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도(屍帳圖)의 경우 작성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검험 내용의 기록 역시 편차가 있지만 관문식에서 지정한 항목을 비교적 충실히 수록하고 있다.

검안서 앞부분에 기재되는 검험 내용의 기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보고서 내의 일부로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시장도 그림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검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검안서의 첫머리는 사건을 접수하여 출발하여 검험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서술하며 이어서 여러 관련자를 불러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검험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검시 기록은 먼저 현장을 묘사하고, 뒤이어 시체의 상태를 신주무원록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기술하였다.

약술하면 앞면은 정심에서 시작하여 편좌편우, 신문, 액각, 태양혈 등으로 이어지며 얼굴 부위를 거쳐 신체 아래 부위의 상태를 적도록 하였다. 다음 뒷면은 뇌후, 발계 등 머리 뒤편에서 시작하여 귀, 목 부위를 지나 어깨, 손 그리고 척추를 따라 내려가다 엉덩이, 다리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앞면과 뒷면을 합쳐 모두 70여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의 부위를 기술하게 되어 있었다. 치사자(致死者)의 사인은 관련자 심문과 시장에 기록한 검시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검안서에 적게 되어 있었다. 검안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총 3건을 작성해야 했는데 3건 중 1건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1건은 해당 지방관이 보관하며 나머지 1건은 사망자의 인척에게 발급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 검안 문서에 대한 연구 보고를 보면 당시 사회적 갈등의 내력과 범죄의 성립 상황을 주로 검토한 역사학적 연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12,17-21]. 하지만 이 문서에 함께 수록된 시장의 경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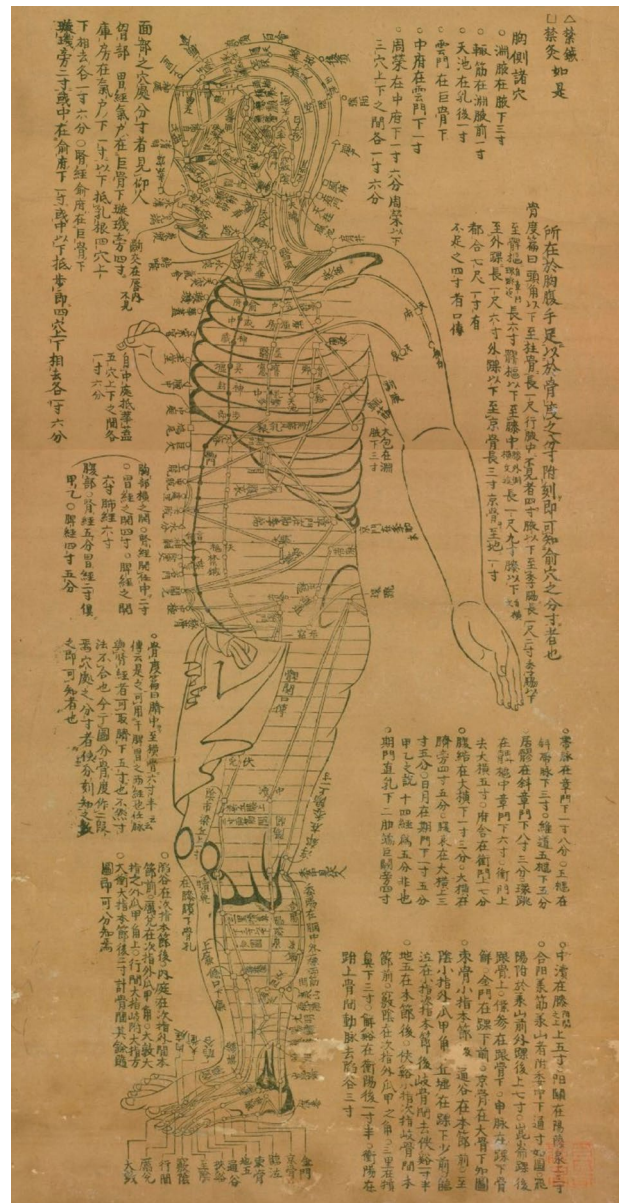


Fig. 5. The anatomy of oriental acupuncture. Most anatomical structures used in acupuncture is different from those of forensic investigation of Joseon Dynasty period. The figure (십사경발휘경락유혈골도지도; 十四經發揮經絡俞穴骨度之圖) is retrieved from National Diet Library, Japan (<https://dl.ndl.go.jp/en/>).

신의 상태에 대한 육안적 관찰 소견이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어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시장 내 검시 소견에서 기술된 인체 부위에 대해서는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지 해부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의학적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에는 신체 각 부위의 보존 상황 및

상처의 유무와 형태 등이 매우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당시 한의학서나 침구서 등에 자주 기술된 것과는 사뭇 다른 해부학적 부위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이는 조선시대 당시 시신의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검안의 시장에 기록된 인체 부위는 당시 한의사 등이 관심을 두던 곳과는 다른 부위였다는 것으로 그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시장은 해당 사건 정황의 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안 문서 내용 중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법의학적 검사의 공식적 전거로 이용되었던 증수무원록에 수록된 각 인체 부위의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면밀히 추정함으로써 당시 검안 자료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역사가학자가 밝힌 당시의 인문학적 정황과 함께 조선시대 시장에 기술된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본다.

REFERENCES

- Ergang RR. Europe from the Renaissance to Waterloo.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66.
- Shin DH, Hong S, Kim CY, Hong SJ, Ki HC, Lee SD, et al. Prospect of Paleopathological Research on the Forensic Work Records of Joseon Dynasty Period in Korea. *Asian J Paleopathol.* 2023;5:8-20.
- Kwak J-S. A Review of Postmortem Investigation of Joseon Dynasty in the Aspect of Recent Forensic Medicine. *J Forensic Investig Sci.* 2006;1:5-10.
- Kim H. The Publication of the 《Shinju-Muwonrok (新註無冤錄)》 (The Newly Annotated Edition of the 《Wuyuanlu (無冤錄)》) during the early 15th Century, and the Autopsy Procedures at the time. *Korean J Leg Hist.* 2003;195-230.
- Kim H. Kumko, A manual of Autopsy for the Local Officials in Early Nineteenth Century, Joseon. *Choson Dynasty Hist Assoc.* 2015;72:385-416.
- Kim H. A postmortem examination, document of 'normal exception'. *Korean J Jangseogak R Lib.* 2015;34:312-8.
- Choi H-B. Operation of Autopsy System in the Song Period: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of Autopsy System (檢驗格目)'. *YOKSA HAKBO.* 2013;220:125-56.
- Yoo DY. A Study on Postmortem Investigation in Choson Dynasty era: Hanyang University; 2017.
- Kim H. A Basic Evalu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Kyujanggak Archives. *Choson Dynasty Hist Assoc.* 1998;4:155-230.
- Cho Y. The Contents and Historical Material Value of Coroner's Inquest Reports in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 Korean Oriental Med.* 2011;17:29-37.
- Sim J. Analysis on Korean Society 100 years ago Reflected in Murder Cases: Review of Murder Cases about 100 years ago: History from below in Korea by Kim Ho. *J Humanit.* 2019;76:503-12.
- Cho Y-J. Reinterpretation of Murder Scene Inspections from 1895 to 1907: An Analysis of the Pictures of Homicide Tools in Post-mortem Reports. 2016;48:273-361. <https://doi.org/10.22943/kyujg.2016.48.007>.
- Song C, Lee H, Jang Y, Hwang M.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Center; 2004.
-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ition): Academia; 2014. 950 p.
- Oriental Medical Terminology 2.1: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Available from: <https://cis.kiom.re.kr/terminology/search.do?bigo=index>.
- Organization WH.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07.
- Kim G-O. Analysis-Examples of Examination of a Murder Case Related to Lim, Sosa at Changsundo in the late 19th Century. *Hist Bound.* 2009;73:107-35.
- Kim H. A study on the righteous violence and its limit in 19th century through Lee Hakjo Autopsy Report.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75-96.
- Park S. Women and Society in the Late-Nineteenth-Century Inquest Record.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1-26.
- Sim J. Mountain Lawsuits [山訟] in the ending days of Joseon, examined through Geom'an (檢案, Autopsy reports) materials.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27-50.
- Chon K. Practices of gambling in late Chosun appeared in the ancient documents and examinations. *Korean Hist Manuscr Res.* 2017;50:51-74.

간추림 : 검험(檢驗)이라고 불리는 변사자 조사작업 기법은 중국 송대(宋代)가 되면 크게 발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도입된 무원록(無冤錄)이 전통 법의학적 검시 기법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조선시대에 작성된 검시문안(檢屍文案) 일체를 검안(檢案)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시신(屍身)을 검사한 후 작성한 소견서인 시장과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조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 법의학(法醫學)을 수용하기 이전의 자생적인 법의학적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屍帳)에 기술되어 있는 검안 내역은 의학적 시각에서 검토하면 사망자의 사인과 정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이 자료에서 인체 부위를 가리키는 명칭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검토가 현재까지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시장에서 기술되었던 신체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를 명확히 추정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시장 도면 내 각 인체 부위 명칭은 무원록 한글 언해본의 기술 내용을 참고하면 이를 현대 해부학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머리 부분에서는 그 해부학적인 위치가 모호하게 기술되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작업을 통해 확보한 의학적 정보는 인문학자가 밝힌 당시의 여러 역사학적 정황과 함께 조선시대 시장에 기술된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본다.

찾아보기 낱말 : 검험, 무원록, 법의학, 해부학, 시장, 조선시대